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고찰

박윤만*

들어가는 말

지난 세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한 성서 신학, 특히 성서 본문 주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언어학적 용어들 중 하나가 문맥이다. “낱말의 의미는 문맥 안에서 그것이 활용된 용법으로 결정된다.”¹⁾는 명제는 성서 읽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주석 원리로 작용했다. 그러나 성서 해석을 할 때 문맥에 깊이 의존했던 것과 달리 그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명료화 작업은 성서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때때로 문맥 개념이 해석자가 특정 본문 이해를 정당화하려고 임의로 정보를 불러들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지난 세기 동안 현대 언어학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²⁾

* 대신 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데이빗 앨런 블랙, 『신약 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이상일 역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201.
- 2) 현대 언어학은 일반적으로 소쉬르가 생전에 한 강의와 노트를 기초로 그의 제자들이 소쉬르 사후에 출판한 작품 F.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New York: McGraw-Hill, 1966; org. ed. 1916)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발전한 현대 언어학의 다양한 관심들을 위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R. de Beaugrande, *Linguistic Theory: The Discourse of Fundamental Works* (London: Longman, 1991); H. G. 위도우슨, 『언어학』, 유석훈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1).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현대 언어학의 발전된 이론들을 사용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느리다.³⁾ 특히 성서는 언어와 문법 같은 언어의 기초 위에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발전한 현대 언어학에 학자들이 무관심한 것은 성서학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성서 본문의 의미는 문맥에 의존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고려한다면, 문맥의 의미 탐구를 보다 명확한 방법론으로 논하기를 원하는 성서학자들이 현대 언어학의 문맥 이론에 대한 선지식을 갖는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대 언어학 중 특히 인지 언어학에서 논의하는 문맥 연구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온 통찰들로 신약 성서 본문을 읽고자 한다.

-
- 3) 현대 언어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성서 본문 주석에 적용한 연구를 위해서는 참조하라. J.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74); J. P.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Atlanta: Schorlas Press, 1982); M. Silva, *Biblical Words,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P. Cotterell and M.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89), Chs. 2-5; S. E. Porter, "Studying Ancient Languages from a Modern Linguistic Perspective: Essential Terms and Terminology," *Filologia Neotestamentaria* 2 (1989), 147-172; idem,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ExpTim* 103 (1992), 202-208; E. A. Nida, "Implications of Contemporary Linguistics for Biblical Scholarship,"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1 (1972), 73-89; J. T. Reed, "Modern Linguistics and The New Testament: A Basic Guide to Theory, Terminology, and Literature," S. E. Porter and D. Tombs, eds., *Approaches to New Testament Study*, JSNTSup 120 (Sheffield: JSOT Press, 1995), 222-265; Y. M. Park, "Mark's Memory Resources and Controversy Stories (Mark 2.1-3.6): An Application of the Frame Theory of Cognitive Science (Cognitive Linguistics and Psychology) to the Markan Oral-Aural Narrative," T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oronto, 2008).

1. 현대 언어학에서 문맥에 대한 관심의 시작: 소쉬르

이미 현대 언어학에서 문맥을 한 낱말, 문장, 담화가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문맥에 대한 관심은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의 자의성, 공시적 언어 접근, 통합체적, 동치적 언어 상호 관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언어적 단위들의 의미는 그것들이 다른 정보와 연관성 속에서만 밝혀질 수 있다는 명제를 만들었다.⁴⁾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 기호와 그것의 의미 사이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낱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의미 형성의 한 단위인 낱말만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맺고 있는 다른 어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⁵⁾ 한 낱말의 의미가 다른 낱말이나 문장 관계로 결정된다는 소쉬르의 주장은 문맥의 중요성을 급부상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한 낱말과 그것의 문법 형태의 의미를 결정하는 문맥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문맥은 언어 정보인가, 아니면 언어 외적인 요소인가? 인지 언어학은 이러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

2. 인지 언어학에서 문맥

4) de Saussure, *General Linguistics*, 65-132.

5) de Saussure, *General Linguistics*, 67-69, 121-125; A. C. 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 H. Marshall,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85.

2.1. 인지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형태의 의미는 언어 체계가 결정하는 것으로 믿으면서 언어를 “그 자신만의 구조, 구성적 원리, 동력을 가진 독립적인 체계”로 이해한다.⁶⁾ 구조주의자들의 언어와 의미 분석은 인간의 역할을 배제한 채 주로 어휘가 가지는 다른 어휘와의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⁷⁾ 그러나 인간의 언어 사용을 인지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지 언어학은 “언어는 자율적 인지 능력이 아니다. 이 가설의 기본적 주장은 언어적 지식의 표현이 다른 개념적 지식 구조의 표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지식이 사용되는 과정들은 언어 영역 밖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인지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⁸⁾고 한다. 그러므로 인지 언어학은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와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지 언어학자들은 언어 형태와 그것의 의미가 “인간의 개념적 지식, 신체적 체험, 담화의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되어 유발된다”고 주장한다.⁹⁾ 언어의 의미 형성이 인간의 인지 모형, 개념, 경험 지식 구조와 같은 인지과정과 구분될 수 없다는 인지 언어학의 전제들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 사항으로 여기는 문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2.2. 문맥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접근

-
- 6) J.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17.
- 7)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58.
- 8) W. Croft and D. A.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
- 9) Raymond W. Gibbs, “What cognitive about cognitive linguistics?” E. H. Casad, 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27.

인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문맥은 해석의 틀을 만들고 해석에 제약을 주는 정보 역할을 한다.¹⁰⁾ 그러므로 브라운과 율(G. Brown and G. Yule)은 어떤 문장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그것이 수락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문맥을 언어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¹¹⁾ 하지만 우리는 언어 사용자가 그러한 상황의 문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문맥을 순수 본문이나 언어 정보로 이해했다.¹²⁾ 그러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문맥적 상황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은 언어 항목(단어, 구, 문장 담화와 같은 근접 문맥)은 사실 그 자체 안에 광범위한 정보(개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담화의 의미 이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 안에 있는 정보가 선택되고 이용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적 능력과 일반적 인지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인지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주의해야 한다. 브라운과 율이 제시한 “근접 해석과 유비의 원리들”에 따르면 청자는 언어적 요소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본문 해석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그 언어로 표현된 사건들과 ‘유사한’ 머릿속 세상 지식이나 백과사전식 지식과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문맥 형성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공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¹³⁾

-
- 10) 이노우에, “언어적 문맥,” Y. Tsuji 편, 『인지 언어학 키워드 사전』, 임지룡 외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4), 135.
- 11) Brown and Yule, *Discourse*, 25-26; A. J. Sanford and S. C. Garrod, *Understanding Written Language: Explorations of Comprehension Beyond the Sentence*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981), 8-9.
- 12) T. A. van Dijk,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0-34.
- 13) Brown and Yule, *Discourse*, 35-67; Croft and Cruse, *Cognitive Linguistics*, 102-103; 이노우에, “언어적 문맥,” 135; idem, “사회적 문맥,” 103.

<표 1>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문맥 형성에 공조 역할을 하는 두 요소

문 맥 형 성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전담화	참여자(화자와 청자)에 대한 지식(지위, 성별, 직업, 민족성, 거주 지역)
근접 본문·낱말 주위의 구와 문장	참여자의 사회적 상황
낱말의 동치적, 통합체적 관계	참여자의 사회적 통념이나 공유된 지식
담화의 장르	

따라서 사회 인지 언어학자 검페르즈(J. Gumperz)는 “문맥화(contextualization)”를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평가하고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필요한 대화의 전체들을 떠올리기 위해, 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과거 경험으로 축적된 배경 지식(비언어적 정보)에 그 대화 내용을 연결하는 인지 작용으로 이해한다.¹⁴⁾ 그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문맥화 관습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¹⁵⁾ 언어 사용자가 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과거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생긴 지식 체계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 사용자가 본문의 그 사건에 적절한 “문맥화”(Gumperz의 용어를 사용하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그 상황 안에 있는 원형적¹⁶⁾ 사람, 사물, 사건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위의 고찰을 근거로, 우리는 인지 언어학이 언어 사용자가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나 본문 정보를 사용하여 개념이나 머릿속으로 구상

14) J. J. Gumperz, “Contextualization and understanding,” A. Duranti and C.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30. 마찬가지로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87는 “낱말 의미들은 인지 구조들이며 지식과 신념으로 새겨진 형태들이다 의미들을 특징짓는 문맥은 언어 체계 자체를 뛰어 넘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15) Gumperz, “Contextualization,” 246-247; Brown and Yule, *Discourse*, 61.

16) 인지 언어학에서는 ‘원형’을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로 정의한다. 임지룡, 『인지 언어학』 (서울: 탑 출판사, 1997), 64 참조.

하는 ‘의사소통 상황’으로 문맥을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¹⁷⁾ 사실 위에서 언급한 문맥 고찰은 인지 언어학의 틀 의미론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¹⁸⁾

2.3. 틀 의미론(frame semantics)과 문맥

틀¹⁹⁾은 고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영역에 연관된 개념 덩어리로 구성된 지식 구조를 의미한다.²⁰⁾ 사람, 사건, 장소에 관한 사회 문화적 지식은 일련의 반복된 경험으로 발췌되어 인간의 지식 구조로 저장된 후 필요할 때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²¹⁾ 인지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 세계와 이야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를 바로 이러한 틀 지식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언어학자인 필모어(Charles Fillmore)는 이러한 인지 이론을 근거로 틀 의미론을 만들었다.²³⁾ 틀

17) van Dijk, *Context*, 16.

18) C. Goodwing and A. Duranti, “Rethinking context: an introduction,” A. Duranti and C.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3.

19) 인지 과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것의 대응어는 스크립트, 도식, 시나리오, 인지 모형 등이 있다.

20) 임지룡, 『인지 언어학』, 123-137.

21) T. van Dijk,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7), 159;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90, 93.

22) R. Schank and R. P. Abelson,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7), 36-68; David Rumelhart,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J. Sapiro, et al.,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Psychology, Linguis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B. Associates, 1980), 33-48.

의미론에 따르면 낱말의 의미와 기술은 그 언어 공동체의 경험, 지식,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과 같은 개념 지식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된다.²⁴⁾ 틀 의미론의 중심 개념인 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지식을 의미한다. 만일 언어 사용자가 어떤 단어가 가진 배경 지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²⁵⁾ 이런 이유 때문에 틀 이론은 담화 처리 때 언어 사용자가 어휘 항목들(lexical items)을 사용하여 상황적 지식 구조, 틀을 환기한 후 이 환기된 틀을 근거로 뒤따르는 정보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신약 성경의 예를 보자. 누가복음 4:16에 언급된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회당** 틀에²⁶⁾ 연결된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는가, 그러한 방문이 “자기 규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문 이후 이어지는 예수의 행동(“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은 기대되어진 정보인가? 같은 것들이다. 특히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본문 중간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참여자 정보[“그 말은 자”(17, 20절)와 “회당에 있는 자들”(20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비록 본문은 이런 배경 정보를 보충 설명하지 않지만 1세기 화자와 청자는 이 본문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 별 어려움이

23) 틀 의미론은 필모어(C. J. Fillmore)가 처음으로 언어학 영역에서 주창했다.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C. J. Fillmore, “The Need for a Frame Semantics Within Linguistics,” *Statistical Methods in Linguistics* (1976), 5-29; idem, “Frame Semantics,” Th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in, 1982), 111-137; idem,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e Semantica* 6 (1985), 222-254.

24) Fillmore, “Frame Semantics,” 122. 인지 언어학에서 낱말은 개념 자체가 아니라 개념의 꼬리표(label to a concept)로 이해된다. Croft and Cruse, *Cognitive Linguistics*, 14; R. W. Howard, *Concept and Schemata. An introduction* (Cassell: London, 1987), 17-19 참조.

25) Fillmore, “Frame Semantics,” 119.

26) 이 논문은 낱말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과 틀을 표시하기 위해서 진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회당에 들어가자”(16절)라는 언어 표현으로 ‘열려진’ 회당 방문 틀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적 종교 경험을 통해서 회중(참석자), 회당장(참석자들의 계급 구조), 안식일(모임 날), 기도, 토라 읽기와 연구(일어나는 사건들) 등의 개념들과 상호 연결되어 언어 사용자의 지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²⁷⁾ 그러므로 본문 서두에서 제시된 회당 방문 틀은 그것과 연관되어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앞으로 언급될 정보를 예상하도록 이끌면서 언어 사용자의 본문 이해 과정을 돕는다.

제시된 내용들을 통해 문맥은 주어진 본문 이해를 위해 언어 사용자가 인지적 틀을 사용하여 구상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담화를 처리할 때 구체적인 언어 항목으로 환기되어 정보 이해 과정을 돕는다.²⁸⁾

3. 틀을 기초로 한 문맥 이해와 헬라이어 신약 성경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틀 문맥 이해(이하 틀 문맥)가 신약 성경 헬라이어 문법과 어휘, 담화 이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3.1. 문법 이해

3.1.1. 서술 분사(Predicative Participle)와 주동사의 관계

27) 제2 성전기 유대 사회에서 회당의 기능과 사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E. P. Sanders,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BCE-66CE* (London: SCM;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2), 198-202.

28) H. G. 위도우슨, 『언어학』, 91.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서술적 분사의 사건이 주동사의 사건과 개념적으로 의존해 시간적(주동사의 사건에 선행한 후 뒤따르는), 화용적 관계(양보, 원인, 조건, 도구나 수단, 목적, 보충 등)를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²⁹⁾ 그런데 무엇이 주동사와 분사의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가? 분사가 주동사와 맺고 있는 다양한 통사적 관계들(syntactical relations)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다.³⁰⁾ 하지만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은 주동사와 분사의 화용적 관계 유추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문맥”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³¹⁾ 우리는 이미 문맥은 언어 사용자가 텍스트 안에 나오는 언어적 정보를 매개로 떠올리는 틀 지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서술적 분사가 개념적으로 주동사에 의존한다고 가정할 때, 서술적 분사와 주 동사의 화용적 관계를 결정하는 문맥이란 언어 사용자가 주동사의 사건을 근거로 떠올리는 틀 지식이나 “상황적 스크립트(situational script)”로 설명해야 한다.³²⁾ 그러므로 호이일(R. Hoyle)은 “헬라어는 주동사를 사용하여 시나리오(틀) 안에 있는 핵심 사건을 나타내고, 분사 또는 종속절의 동사들을 통해서서는 주동사의 시나리오(틀)에 개념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을 언급한다.”고 주장한다.³³⁾ 마가복음 2:8의 예를 보자(헬라어에서 분사는 밑줄, 주동사는 진한 글씨체로, 종속절은 들여쓰기로 표시되어 있다).

29) 참조, C. F. D. Moule, *An Idiom-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99; 어니스트 D. 버트, 『신약 성경 헬라어 구문론』, 권성수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8), 230-237; Porter, *Idioms*, 190-192.

30) Porter, *Verbal Aspect*, 385-387; idem, *Idioms*, 188-190; Park, “Mark’s Memory Resources,” 272-273.

31) BDF, § 417; Moule, *Idiom*, 99; Porter, *Verbal Aspect*, 374; idem, *Idioms*, 190.

32) “상황적 스크립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Schank and Abelson, *Scripts*, 41-50를 보라.

33) R. A. Hoyle, “Scenarios, discourse and translation: The scenario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its relevance for analysing New Testament Greek and modern Parkari texts, and its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theory,” Ph. D. diss. (The University of Surrey Roehampton, 2001).

καὶ εὐθὺς ἐπιγινούς ὁ Ἰησοῦς τῷ πνεύματι αὐτοῦ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ὅτι οὕτως διαλογίζονται ἐν ἑαυτοῖς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λέγει αὐτοῖς· τί ταῦτα διαλογίζεσθε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ὑμῶν;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³⁴⁾

실제 삶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화의 내용을 먼저 ‘인지하는’ 것은 ‘말하는’ 행동의 원형적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통사적으로 주동사에 선행하는 2부정 과거 분사의 사건(ἐπιγινούς, “아시고”)은 주동사 사건(λέγει, “이르시되”)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주동사의 사건 틀에 원형적으로 부속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의 주동사 사건에 대한 틀 지식은 서술적 분사 사건의 문맥으로서 후자의 전자에 대한 화용적 관계를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8:27이다.

ἐληλύθει προσκυνήσων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버튼은 주동사를 따르고 있는 미래 분사(προσκυνήσων, “예배하러”)를 목적 부사 분사로 분류한다.³⁵⁾ 결과적으로 이 절에서 분사의 사건은 주동사의 행동(ἐληλύθει, “왔다가”)의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고는 분사의 목적적 기능에 대한 1세기 그리스도인 청자들의 ‘문맥적’ 추론이 ‘예배 행위’를 그 사건의 원형적 목적으로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 틀을 환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4) 이 논문에서 헬라어에 대한 번역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개역』(1961)을 따른다.

35) 버튼, 『구문론』, 232.

3.1.2. 접속사 해석

헬라어는 많은 접속사가 있다. 접속사는 문장에서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의 적절한 용법을 아는 것은 한 구와 절의 의미, 절과 절 사이의 관계, 전체 담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헬라어 접속사 해석의 어려움은 소수의 접속사(예, 거의 고정적으로 반의적 용법으로 쓰이는 ἄλλα를 제외하고는 καί, ὅτι와 같은 헬라어 접속사들이 하나 이상의 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록 로버트슨(A. T. Robertson)이 ὅτι는 대조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³⁶⁾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은 그것의 주요 용법을 반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ὅτι의 의미 역할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처럼 보인다.³⁷⁾ 로버트슨에 따르면 καί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부가(also)”, “강조(even)”, “연결(and).”³⁸⁾ 하지만 포터는 καί의 세 가지 용법 외에 ‘반의적’ 의미를 추가한다.³⁹⁾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장 속에 ὅτι와 καί가 나타날 경우 그것들의 다양한 사전적 용법들 중에서 현재 담화를 보다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정립하는 것이다. 로버트슨은 καί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것의 의미의 결정은 “전적으로 문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이 논문은 담화에서 접속사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게 돕는 문맥이 텍스트 안에서 분명하게, 암시적으로 언급된 틀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복

36)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4th ed.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org. ed. 1906), 1184.

37) BDF, § 447; Maximilian Zerwick S.J., *Biblical Gree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157; Porter, *Idioms*, 208. 저익과 포터는 물론 ὅτι가 빈번하게 “진행적인(progressive)”, “설명적인(explanatory)”, “연결(connective)”과 “강조(emphasis)”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38) Robertson, *Grammar*, 1181.

39) Porter, *Idioms*, 211.

40) Robertson, *Grammar*, 1181.

음 5:34-35를 보자(관련 접속사는 진한 글씨체이다).

34절 *μη δύνασθε τοὺς υἱοὺς τοῦ νυμφῶνος ἐν ᾧ ὁ νυμφίος μετ' αὐτῶν ἐστιν ποιῆσαι* 혼인집
 νηστεύσαι,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
 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35절 *ἐλεύσονται δὲ ἡμέραι, καὶ ὅταν ἀπαρθῇ ἀπ' αὐτῶν ὁ νυμφίος,*
 τότε νηστεύσουσιν ἐν ἐκείναις ταῖς ἡμέραις,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개역』, 『개역 개정』과 NIV는 35절의 접속사 *δέ*를 반의적 의미(그러나, but)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RSV는 이러한 번역을 생략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개역』과 『개역 개정』의 번역을 지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이론적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틀을 기초로 한 담화 이해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 즉, 1세기 유대 결혼 관습에서 결혼식장을 떠나는 사람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34절의 “혼인집 손님들(*τοὺς υἱοὺς τοῦ νυμφῶνος*)”로 환기된 결혼식 틀은 1세기 청자들이 35절의 내용을 결혼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관습적인 기대를 위반하게 한다.⁴¹⁾ 따라서 이러한 비 전형적 사건은 청자가 그 내용의 도입부에 위치한 접속사 *δέ*를 반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3.1.3. 동작주 부재 구문(agentless construction)의 해석

신약 성경 헬라이어는 자주 비 전방 조음적(non-anaphoric) 인칭 동사 형태들과 대명사를 사용하여 어떤 사건의 참여자를 묘사할 때가 있다.

41) 1세기 유대 결혼 관습에 대해서는 D. E. Nineham, *Saint Mark* (Middlesex: Penguin, 1963), 102; R. A. Guelich,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112.

해석자의 임무는 그러한 동사들과 대명사의 의미적 동작주(semantic agent)를 언어학적인 기초 위에서 추론하는 것이다. 틀 의미론에 따르면 만일 근접 텍스트가 연 틀의 어떤 정보가 화자와 청자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된 전형적 구성요소여서 청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유추 과정으로써 올릴 수 있다면, 틀을 기초로 하는 이야기는 그 정보를 빈번히 생략해도 무방하다.⁴²⁾ 그렇다면 어떤 동사가 비 전방조응적 주어와 함께, 대명사가 비 전방조응적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그 텍스트 안에 관련된 틀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하므로 청자는 그 틀을 환기할 경우에만 적절하게 그 본문(그것들의 의미적 동작주)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13을 보자(비 전방조응적 동작주를 가진 수동형 동사는 밑줄 쳤다).

Τότε προσηνέχθησαν αὐτῷ παῖδια ἵνα τὰς χεῖρας ἐπιθῆ αὐτοῖς καὶ προσεύξῃται·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동사[προσηνέχθησαν, (문자적 번역) ‘그들이 이끌려오다’] 사건의 수용자(παῖδια, “아이들”)가 그 문법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그 사건의 의미상 동작주의 정체를 본문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사의 의미상 주어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언어학적 근거는 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데려오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수동태 동사의 의미상 주어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 모형으로 그 배경 지식 구조(틀)가(이) 환기되도록 의도되었다.⁴³⁾ 그렇다면 문화적 지식을 원형적 정보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적 틀은 1세기 청자들에게 προσηνέχθησαν의 의미상의 동작주(즉,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의 신분)가

42) Brown and Yule, *Discourse Analysis*, 256-271.

43) 고대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는 Ulrich Luz, *Matthew 8-20*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504를 보라.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틀은 수동형 동사의 의미상 동작주뿐만 아니라 능동형 동사와 대명사의 동작주를 밝히는 문맥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3:1-2, 4를 보자(틀은 진한 글씨체로, 비 전방조응적 동작주를 가진 동사와 대명사는 밑줄 그어져 있다).

1절 *Καὶ εἰσῆλθεν πάλιν εἰς τὴν συναγωγὴν...*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2절 *καὶ παρετήρουν αὐτὸν εἰ τοῖς σάββασιν θεραπεύσει αὐτόν, ἵνα κατηγορήσωσιν αὐτοῦ.*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옛보거늘

4절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저희에게 이르시되...

2절의 3인칭 복수 동사들(*παρετήρουν*, “옛보거늘”; *κατηγορήσωσιν* “송사하려”)의 의미상의 동작주가 누구인지 선행하는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질문을 받고 있는 대상을 언급하기 위해 4절에서 사용된 3인칭 복수 대명사(*αὐτοῖς*, “저희에게”) 역시 선행 명사 없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의 안식일 치료 행위를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를 감시하던 중 그의 질문을 받고 있는 동작주의 신분 정보는 전적으로 청자의 추론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논쟁의 장소 배경인 회당 정보가 1절에 이미 주어졌고 본문에서 **회당** 틀이 이미 열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유대 종교와 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회당 집회의 원형적 참석자이기 때문에(막 1:22; 마 13:6, 34; 눅 11:43 참조)⁴⁴ 청자들이 안식일 법 준수 문제로 적대적 감시를 취하는 동작주를 바리새인들로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틀 문맥적 추론은

44) G. F. Moore,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The Age of the Tannai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286-287.

이 담화의 종결부(6절)에서 바리새인의(회당 틀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출현을 언급하는 본문상의 증거(ἐξεληθόντες οἱ Φαρισαῖοι εὐθὺς...,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로 확증된다.⁴⁵⁾

3.1.4. 수사 의문(Rhetorical Question)

비크만(J. Beekman)과 콜로우(J. Callow)는 신약 성경은 대략 1,000개의 의문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약 70퍼센트는 수사 의문으로 분류된다고 한다.⁴⁶⁾ 실제 의문문은 대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수사 의문은 일반적으로 질문의 답변 없이 대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그 정보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⁴⁷⁾ 그러나 수사 의문의 이러한 목적은 오직 그 정보가 청자의 지식 구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만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수사 의문을 이용하여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문맥, 틀 지식)을 떠올려 그 화자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26에 나오는(밀줄 그어진) 수사 의문을 보자.

25절 καὶ προσελθόντες ἤγειρα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κύριε, σῶσον, ἀπολλόμεθα,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ὁ δειλὸς ἐστε, ὀλιγόπιστοι,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45) J. Marcus, *Mark 1-8*, AB 27A (New York: Doubleday, 2000), 219은 마가복음 3:6의 바리새인의 출현을 “예상 밖”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출현은 회당 틀을 가진 1세기 청자들에게는 ‘예상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6)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with Scripture and Topical Indexe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74), 229.

47) Beekman and Callow, *Word of God*, 238.

제자들은 바다 여행 중 만난 폭풍으로 침몰 직전인 배 안에서 예수께 구원을 외친다. 이에 예수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질문하신 후(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간다. 제자들에게 한 예수의 질문의 의도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가(그러므로 실제 의문문) 아니라 그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환기시키기 위해였다는 것(수사적 질문)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스승인 자신의 힘과 동행에 대한 믿음’을 불러내기 위해 이 수사 의문을 사용하였다.⁴⁸⁾ 그러나 만일 청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대한 어떤 자세가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는지 틀 문맥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 이 본문에서 수사 의문을 통한 의사소통은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의 수사적 의문은 실제 의문으로 잘못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자들이 구절 안에 있는 수사의 문을 그것이 의도된 대로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어떤 틀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인지한 후 그 틀을 배경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⁴⁹⁾

3.2. 어휘 이해

3.2.1. 명사 정보(사람, 사물, 장소, 시간, 물질) 이해

48)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 부름 틀의 원형적 지식이 ‘염려 없이’ 예수의 힘과 권위에 대한 믿음과 그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본문상의 증거는 6:25-34; 10:1; 18:20; 28:18, 20을 보라.

49) 예수의 신적인 신분과 그에 따른 충성과 신뢰가 초대교인들의 종교적 경험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빌립보서 2:6-11, 고린도전서 8:6, 계시록 5, 에베소서 1:21-22을 참조하라. L. W. Hurtado, *One God, One Lord*, 2nd ed. (London: t. & t. clark, 1998), 117-124.

텍스트는 일관성 있는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연적이지만 상황, 사물, 사람 등에 관한 어떤 핵심 정보를 언어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서 함축적이다. 텍스트의 이런 함축적인 경향은 텍스트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추론을 필수 불가결한 인지 과정으로 만든다. 특히 틀의 추론적 기능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의 명사 정보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요한복음 18:28-29을 보자(장소와 인물 틀은 진한 글씨로 나타냈다).

28절 Ἀγουσι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ἀπὸ τοῦ Καϊάφα εἰς τὸ πραιτώριον· ἦν δὲ πρωΐ· καὶ αὐτοὶ οὐκ εἰσῆλθον εἰς τὸ πραιτώριον, ἵνα μὴ μιανθῶσιν ἀλλὰ φάγωσιν τὸ πάσχα,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ἔξηλθεν οὖν ὁ Πιλάτος ἕξω πρὸς αὐτοὺς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관정”(τὸ πραιτώριον)으로 끌고 간 후 그들은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본문은 그 이유를 “더럽힘을 받지 않기(μὴ μιανθῶσιν)”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비록 본문은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ἵνα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본문 이해에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한 것인가? 종교적 혹은 물리적 더럽힘? 왜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관정’이라는 낱말이 요한복음 중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본문은 결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부가 설명하지 않는다. 틀 의미론은 이러한 텍스트의 침묵은 그 정보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문화적 지식이기 때문에 청자가 그들의 정결법 틀과 관정에 관한 장소 틀을 환기하여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화자가 추측하고 있다고 의미한다.⁵⁰⁾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ἰνα* 절은 유대인들의 정결법 틀이라는 문맥을 떠올릴 때 이해될 수 있다(요 2:6; 4:9; 19:31; 비교, 행 10:28). 또한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인’ 로마 총독의 공식 사택(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정결치 못한 장소)이라는 의미(semantic)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 틀 관정⁵¹⁾은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하도록 허락한다. 마찬가지로 그 장소의 원형적인 참여자로서 로마 총독을 전제하는 관정 틀은 그 당시 빌라도를 그 장소의 ‘기대된’ 거주자로 전제하고 있는 29절의 정보도 이해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빌라도’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가 누구이며, 왜 그 곳에 살며, 사람들은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야 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주둔지의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위(비교, 18:31)를 가지고 예수 시대에 유대에 부임된 로마 총독이라는 의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물 틀 빌라도는 기대된 참여자로 관정 밖으로 나오는 29절의 묘사와 뒤따르는 그의 재판 행위에 대한 이해를 이끄는 추가 문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2.2. 다의어(Polysemy) 해석

하나의 어휘 항목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경우 언어학자들은 그 낱말이 다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⁵²⁾ 관련 주제와 연관하여 언어학자들은 다의적 관계에 있는 낱말의 의미 경계를 어떻게 정할

50) 다양한 종류(인물, 장소, 사물, 이야기)틀과 그것의 쓰임에 대해서는 참조하라. Park, “Mark’s Memory Resources,” 115-119, 159-163.

51) 고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주택을 정결치 못한 장소로 생각했다는 논의를 위해서는 참고하라.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XXI*, AB 29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0), 846-847;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Revis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 675-676.

52)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102-103.

것인지 집중한다.⁵³⁾ 틀 의미론은 다의어의 의미 경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 언어학은 “만일 한 낱말의 상이한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두 영역[틀]들 지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문체의 어휘 항목이 다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⁵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 낱말의 의미 차이는 그것의 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담화 처리 시 적절한 틀 문맥의 환기는 다의어 관계에 있는 낱말의 특정한 의미 사용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⁵⁵⁾ 예를 들면 “school”이라는 영어 낱말의 의미는 ‘학교’, ‘학파’, ‘물고기 떼’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것은 곧 “school”은 세 가지 다른 틀을 배경으로 그것의 의미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⁵⁶⁾ 신약 성경의 예와 관련하여 헬라어 동사 “χαίρει”나 “χαίρετε”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로우와 나이다(J. P. Louw and E. A. Nida)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χαίρω”를 “rejoice(25.125)”와 “greetings(33.22)”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의미 영역(각각 25 Attitudes and Emotions와 33 Communication)을 가진 것으로 분류한다.⁵⁷⁾ 이 논문의 관심은 문장 속에서 다의어 χαίρω의 두 개의 의미 (“기뻐하라”는 명령문과 단순한 인사말) 사이에서 일상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배경 지식 구조인 틀 문맥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마태복음 26:49의 예를 보자. 그 곳에서

53) Croft and Cruse, *Cognitive Linguistics*, 109-110.

54)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103. [강조는 나의 것]

55) Fillmore, “Frame Semantics,” 124.

56)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103.

57) J. P. Louw and E. A. Nida,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2). 로우와 나이다의 의미 영역 이론과 틀 의미론은 둘 다 낱말의 의미를 영역이나 틀과 연관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의미 영역 이론은 낱말의 의미 구분을 그것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적 특징들의 수와 형태에 기초하고 있지만 틀 의미론은 청자와 화자의 일상이나 문화와 사회적 삶을 통해 축적된 경험적 개념 지식인 틀에 기초하여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Park, “Mark’s Memory Resources,” 20-21을 참고하라. 위의 숫자는 로우와 나이다의 사전에 나오는 각 단어에 부기된 의미 영역(Semantic domain) 고유 번호이다.

가룟 유다는 일정 시간 예수와 떨어져 있다가(마지막 만찬 후 그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 예수를 떠났다) 다시 그를 만나는 첫 시점에 있기 때문에(47절과 49절을 참조하라. “유다가 왔는데”, “곧 예수께 나아와”) 청자는 이 상황에서 만남들이라는 문맥을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환기된 틀은 예수에게 건넨 가룟 유다의 첫 마디 *χαίρω*를 일상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주고받는 의례적인 첫 인사 의(“안녕하십니까”, greetings)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⁵⁸⁾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1에서 *χαίρετε*는 서신이 종결부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지시어 *τὸ λοιπόν*(“마지막으로”)에 뒤따라 언급되고 있으며, 4:4에서도 고대 서신체의 종결부를 구성하는 인사말 형식(4:1-3) 직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언어적 지시어들은 청자들이 헤어짐 결론 틀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⁵⁹⁾ 따라서 마지막 인사를 원형적 정보로 가지고 있는 그 헤어짐 결론 틀은 3:1절과 4:4의 *χαίρετε*를 작별 인사에 대한 지시어 (“farewell”이나 “good-bye”)로 이해하도록 돕는다.⁶⁰⁾

3.2.3. 은유적 연결 짓기(Metaphorical Mapping)

일상 대화에서 은유를 통한 의사소통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를 통한 의사소통이 청자의 머릿속 지식 구조에 기초한 인지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58) 마태복음에서 *χαίρω*의 유사한 사용(greetings or hail)에 대한 다른 예는 다음을 참고하라. 27:29; 28:9.

59) Reed는 “Modern Linguistics,”; idem,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90에서 서신서 장르에 대한 청자들의 인지적 도식(cognitive script) 안에 서신의 시작과 종결을 알리는 언어 정보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0)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참조하라. F. W. Beare,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59), 100, 145-146; BDAG, *χαίρω* 2.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⁶¹⁾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은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물이나 개념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할 때 한쪽 형식으로 다른 한쪽을 표현하는” 비일상적, 시적 문제로 이해했다.⁶²⁾ 그러나 ‘어휘 의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교되고 있는 두 개념 영역들이 상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청자는 텍스트가 의도한 것처럼 두 개념들 사이의 은유적 연결 짓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인지 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는 “언어적 표현으로 은유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개념 체계 안에 은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은유가 하나의 개념[목표 영역(targetdomain)]을 다른 개념[근원 영역(source domain)]으로 연결 짓는(mapping) 인지 작용이라고 설명했다.⁶³⁾ 겉으로 보면 별 상관없어 보이는 두 영역 사이의 은유적 연결 짓기는 청자의 일상 삶으로 체득된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지식’으로 가능하게 된다.⁶⁴⁾ 마가복음 1:24의 경우를 보자. 이 구절에서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에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ἦλθες ἀπολῶσαι ἡμᾶς)라고 외친다. 이 질문은 어휘적 차원에서 본다면 두 적대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지시한다. 그러나 예수와 귀신들린 사람 사이에서 물리적인 전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자들은 이 문장이 예수와 귀신과의 물리적 싸움이나 실제 군사적 행위에 관한 지시가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청자의 인지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은유적 연결 짓기가 바로 그 답이다. 청자는 이 문장을 처리할 때 **귀신 축출**이나 **영적 전쟁**이라는 목표 영역을 실제 군사 전투라는 근원(즉, 귀신 축출을 이해하는 문맥이 되는) 영역의

61) 은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 은유』, 노양진, 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6)에서 시작했다.

62) Nomura, “은유”, 『인지 언어학 키워드 사전』, 158-159.

63)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 은유』, 24-25, 25 인용.

64) 레이코프, 존슨, 『은유』, 26-30, 211-222, 254-264; Taylor, *Linguistic Categorization*, 138-141.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한다.⁶⁵⁾ (이러한 은유적 연결 짓기의 본문상의 증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32-37을 보라. 여기서 예수는 **군사 전투** 영역과 **귀신 축출** 영역을 직접 연결한다. 즉, **영적 전투**는 **군사 전투**의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이해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귀신 축출 이야기에서 예수는 귀신을 내쫓는 공격자이며, 악한 영들은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특정 지역으로 물러나는 예수의 적들이다(1:26, 34; 5:10-13; 7:30; 9:26). 싸움은 사람과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1:25-25; 5:8, 15, 19; 9:27). 공격자의 행동과 명령은 그의 적에게 폭력 저항을 이끌어 낸다(1:26, 27; 5:5, 7, 13; 9:26). 싸움은 귀신들을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서 몰아내는 데 공격자 예수의 승리로 항상 끝난다.⁶⁶⁾

3.3. 이야기 이해: ‘흥미로운’ 이야기의 결정 요소인 틀 문맥

사람들은 종종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상한’, ‘터무니없는’ 것들이라고 판단한다(예, 기독교인들이 승복을 입은 불교 승려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생각 방식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형적(또는 표준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⁶⁷⁾ 만일 그들의 전형적 기대, 다시 말하면 틀

65) 예를 들면, 군사 전투 틀의 원형 요소는 참가자(두 적대자), 부분(군사적 공격과 방어, 방어와 역 공격), 단계(직면, 전투 행위, 종결), 인과(하나의 행동은 다른 행동의 시작을 유발), 목적(사람과 영토 획득, 사람과 영토를 지킴)이다. 위 분석은 레이코프와 존슨(『은유』, 289, 287-280)이 제시한 하나의 사건을 이해할 때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체험적 계슈탈트의 내용을 토대로 했다.

66) 초대교인들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를 물리적 전투에 기초해서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를 위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고린도전서 15:24-28, 에베소서 6:10-17, 갈라디아서 5:16-17, 계시록 12:7-17.

67) R. W. Howard, *Concept and Schemata An Introduction* (London: Cassell, 1987), 39.

지식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사건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추론할 것이다. 틀은 어떤 영역에서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개념으로 구성된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정보가 예상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이론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준다. 한 이야기가 흥미롭기 위해서 내용이 예측가능한 일상적 활동과 사건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흥미로운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일상적 활동과 사건 속에 기대치 못한 사건이나 일상에서 벗어난 사건, 즉 틀 이탈(frame deviation)을 포함해야 한다. 물론 만일 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청자의 정보 처리는 길어지고 결국 이야기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도 본고는 이야기가 틀 문맥의 범위 안에서 예상 밖 사건들을 ‘일정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이 사건들은 청자들이 이야기에서 흥미와 긴장을 경험하게 인도한다고 주장한다.⁶⁸⁾

예를 들면,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막 2:1-12)에서 이웃집 방문 틀을 가진 청자들의 긴장감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2절)까지 모여든 “무리를 인하여”(4절) 예수께서 계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정보를 듣는 시점에서 고조된다. 이것은 ‘문을 통한 집 출입’이라는 원형 정보를 가진 이웃집 방문 틀이 청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목적(예수가 계신 집 방문)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께 “내려놓았다”는 계속된 정보(4절)를 들었을 때 청자들은 틀림없이 놀라는 동시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이는 이웃집 방문 틀이 청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틀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집

68) R. Schank, “Interestingness: Controlling Inferences,” *Artificial Intelligence* 12 (1979), 273-297; Sanford and Garrod, *Understanding*, 171-175; S. Hidi and W. Baird, “Interestingness-A Neglected Variable in Discourse Processing,” *Cognitive Science* 10 (1986), 179-194.

출입 방식에 대한 원형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이웃집 방문 틀은 네 친구의 행동을 “믿음”의 표출로 보는 예수의 반응과 치료(5, 11절)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비록 그 당시 문화적 관습은 그 방문자들이 ‘정상적인’ 집 방문 길이 막혔을 때 예수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치료 능력을 신뢰하는 그들은 그러한 문화적 고정 관념(social stereotype)을 뛰어넘었고 결국 예수에게 칭찬과 치료 반응을 이끌어 냈다.

위의 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틀 문맥을 기초로 한 청자들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흥미와 긴장을 주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본문 안에 전제된 이야기 이해를 위해 필요한 틀 문맥을 그 청자, 독자들이 공유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거의 이천 년의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신약 성서의 언어와 현대 독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성서 안에 전제된 틀 문맥의 이해와 공유는 현대인들의 성서를 통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능력임에 틀림없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신약 성경 본문의 문법, 어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맥을 언어학적 바탕 위에서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종래에 신약 성서 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문맥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했던 정보는 임의적인 성격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틀 의미론에 입각한 문법, 어휘, 이야기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 분석은 보다 더 엄격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신약 성서 본문 주해를 시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신약 성서 헬라어의 다양한 문법적 항목들[서술적 분사, 접속사(καί, ὅτι), 동작주 부재 구문, 수사 의문]은 틀을 전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법적 사용을 통한 의미 전달이 성공을 하려면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틀 문맥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신약 성서의 명사, 명사구의 의미, 다의어, 은유적 표현의 의미 이해는 사전적 지식을 뛰어넘어 문화적, 관습적 지식으로 구성된 틀 문맥을 환기할 때만 가능하다.

셋째, 틀 문맥은 이야기 이해,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와 긴장 유발을 가능케 하는 지식 구조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문맥을 순수 본문이나 언어 정보로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언어 분석의 방법론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틀 의미론에 바탕을 둔 인지 언어학은 언어적 정보를 기초로 떠올린 배경 지식으로 언어 사용자가 구상한 머릿속, 개념적 지식 구조로 문맥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지 언어학의 틀 이론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신약 성서 본문 문맥 고찰을 한 본 논문으로 국내 성서학계에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방법론으로 인지 언어학적 언어분석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다의어, 동작주 부재 구문, 배경 지식, 수사 의문, 서술적 분사 구문, 은유적 연결짓기, 원형적 지식, 틀 의미론, 틀 문맥

<Key Words>

Polysemy, Agentless construction, Background knowledge, Rhetorical question, Predicative participle, Metaphorical mapping, Prototypical knowledge, Frame semantics, Frame context

참고문헌

- 레이코프, 조지 & 마크 존슨, 『삶으로서 은유』, 노양진, 나익주 옮김, 서울: 박이정, 2006.
- 버튼, E. D., 『신약 성경 헬라어 구문론』, 권성수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8.
- 블랙, D. A., 『신약 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이상일 역,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 이노우에, “언어적 문맥,” Y. Tsuji 편, 『인지 언어학 키워드 사전』, 임지룡 외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임지룡, 『인지 언어학』, 서울: 탐 출판사, 1997.
- 장성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 서울: 이레서원, 2007.
- Barr, J.,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 Beare, F. W.,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59.
- Beaugrande, R. de, *Linguistic Theory: The Discourse of Fundamental Works*, London: Longman, 1991.
- Beekman, J.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with Scripture and Topical Indexe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74.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XXI*, AB29 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0.
- Caird, G. B.,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London: Gerald Duckworth, 1980.
- Chomsky, N.,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1986.
- Cotterell, P. and M.,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89.
- Croft, W. and D. A.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David Rumelhart, “Schemata: The Building Blcks of Cognition,” Rand J.

- Sapiro, Bertran A. Bruce, and William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Psychology, Linguis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B. Associates, 1980, 33-48.
- Fillmore, C. J.,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Cathy Cogen,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5, 123-131.
- Fillmore, C. J., "Frame Semantics,"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The Seoul: Hansin, 1982, 111-137.
- Fillmore, C. J.,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e Semantica* 6 (1985), 222-254.
- Fillmore, C. J., "Scenes-and-Frames Semantics," Antonio Zampolli, ed., *Linguistic Structures Processing*, Fundamental Studies in Computer Science, 5, Amsterdam: North-Holland, 1977, 55-81.
- Fillmore, C. J., "The Need for a Frame Semantics Within Linguistics," *Statistical Methods in Linguistics* (1976), 5-29.
- Gibbs, R. W., "What cognitive about cognitive linguistics?" E. H. Casad, 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 Gibson, J., *Biblical Semantic Logic: A Preliminary Analysis*, New York: St Martin, 1981.
- Goodwing. C and A. Duranti, "Rethinking context: an introduction," Alessandro Duranti and Charles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Guelich, R. A.,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 Gumperz, J. J., "Contextualization and understanding," Alessandro Duranti and Charles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 3:1-4:11, 2nd ed.,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Eerdmans, 1983.
- Hidi, Suzanne and William Baird, “Interestingness-A Neglected Variable in Discourse Processing,” *Cognitive Science* 10 (1986), 179-194.
- Howard, Robert W., *Concept and Schemata. An introduction*, London: Cassell, 1987.
- Hoyle, R. A., “Scenarios, discourse and translation: The scenario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its relevance for analysing New Testament Greek and modern Parkari texts, and its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theory,” Ph. D. diss., The University of Surrey Roehampton, 2001.
- Hurtado, L. W., *One God, One Lord*, 2nd ed., London: t. & t. clark, 1998.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indstrom, L., “Context contests: debatable truth statements on Tanna(Vanuatu),” Alessandro Duranti & Charles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Louw, J. P. and E. A. Nida, *Lexical Semantics of the Greek New Testament*,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2.
- Louw, J. P.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Louw, J. P.,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Atlanta: Schorlas Press, 1982.
- Luz, U., *Matthew 8-20*,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Marcus, J., *Mark 1-8, AB 27A*, New York: Doubleday, 2000.
- Moore, G. F.,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The Age of the Tannai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Revise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5.
- Moule, C. F. D., *An Idiom-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Nida, E. 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74.

Nida, E. A., "Implications of Contemporary Linguistics for Biblical Scholarship,"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1 (1972), 73-89.

Nineham, D. E., *Saint Mark*, Middlesex: Penguin, 1963.

Park, Y. M., "Frame Theory as a Semantic Model of Understanding Mark's Oral-Aural Narrative," 서울: 담화인지 언어학회, 사회언어학회, 한국통역번역학회,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8년 공동학술대회, (2008. 5. 31.), 139-150.

Park, Y. M., "Mark's Memory Resources and Controversy Stories(Mark 2.1-3.6): An Application of the Frame Theory of Cognitive Science (Cognitive Linguistics and Psychology) to the Markan Oral-Aural Narrative," T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oronto, 2008.

Porter, S. E.,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ExpTim* 103 (1992), 202-208.

Porter, S. E., "Studying Ancient Languages from a Modern Linguistic Perspective: Essential Terms and Terminology," *Filologia Neotestamentaria* 2 (1989), 147-172.

Reed, J. T.,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 E. Porter &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Sup,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Reed, J. T., "Modern Linguistics and The New Testament: A Basic Guide to Theory, Terminology and Literature," S. E. Porter and D. Tombs, eds., *Approaches to New Testament Study*, JSNTSup 120, Sheffield: JSOT Press, 199, 222-265.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4th ed.,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org ed. 1906.

Sanders, E. P.,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BCE-66CE*, London: SCM;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2.

Sanford, A. J. and S. C. Garrod, *Understanding Written Language: Explorations of Comprehension Beyond the Sentence*,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981.

-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New York: McGraw-Hill, 1966; org. ed. 1916.
- Schank R. C. and Abelson, Robert P.,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7.
- Schank, R. C., “Interestingness: Controlling Inferences,” *Artificial Intelligence* 12 (1979), 273-297.
- Silva, M., *Biblical Words,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1995.
- Taylor, John,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Thiselton, A. C.,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 H. Marshall,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 van Dijk, T. A.,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van Dijk, T. A.,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7.
- Zerwick, M. S. J., *Biblical Gree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초록>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고찰

박윤만

(대신 대학교 교수, 신약학)

문맥은 지난 세기 괄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한 성서 신학, 특히 성서 본문 해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언어학 용어 중 하나이다. 그래도 문맥이 무엇인지 언어학적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신약 성서 학자들이 어떤 본문에 대한 특정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맥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던 정보에는 임의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연구는 현대 언어학 특히 인지 언어학에서 논의되어 온 틀 의미론을 살펴본 후, 거기에서 나온 통찰들로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 읽기의 언어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문맥을 순수 본문이나 언어 정보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인지 언어학에 바탕을 둔 틀 의미론은 문맥을 언어적 정보를 기초로 떠 올린 배경 지식을 사용하여 언어 사용자가 구상한 머릿속, 개념 지식 구조로 이해한다. 본 논문은 신약 성서 본문 주해에 중요한 도구로 이해되어 온 문법, 어휘, 이야기 구조 논의에서 언급한 문맥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틀 문맥’을 사용하여 재정의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신약 성서 헬라어의 다양한 문법적 항목들[서술적 분사, 접속사(*καί, ὅτι*) 동작주 부제 구문, 수사 의문]은 틀을 전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법적 사용으로 의미 전달을 성공적으

로 하려면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한 틀 문맥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한다.

둘째, 신약 성서의 명사나 명사구, 다의어, 은유적 표현의 의미 이해는 사전식 지식을 뛰어넘어 문화적, 관습적 지식으로 구성된 틀 문맥을 환기할 때만 가능하다.

셋째, 틀 문맥은 이야기 이해,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와 긴장 유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구조이다.

<Abstract>

An Application of Cognitive Linguistics to a Study of Context of New Testament Text

Prof. Yoon Man Park

(Taeshin Christian University)

Context is one of the linguistic concepts most frequently referred to by biblical scholars in relation to exegetic studies of the New Testament text, which has been remarkably advanced over the last decades. In contrast to such an increasing concern about context, any attempt to define what is context in linguistic terms has not been made yet by the scholars. It is undeniable that there are arbitrary features with information which exegetes assume in the name of context to interpret text. The approach of this study to the context of the New Testament text is twofold: We survey, first, cognitive linguistics' understanding of context, relating it to the concept of 'frame'(or frame semantics); and next, we attempt to read contextually the New Testament text in light of insights from cognitive linguistics,

particularly frame semantics. Structural linguists have understood context as some kind of linguistic situation or co-text of previous words, sentences, propositions, utterances. But cognitive linguists' claim is that contexts are not just objective linguistic situation, but rather subjective mental or conceptual situation which language users construct on the basis of background(or world) knowledge evoked by linguistic or grammatical items. With frame-based understanding of context(frame context), thus, this study demonstrates how it may contribute to comprehending the New Testament Greek grammars, words and narrative flow. The achievement of the present study, as a result, may be concluded as follows:

a. Since various grammatical items, such as predicative participle, conjunction(καί, δέ) agentless construction, rhetorical question, presuppose the use of frame, in order to for communication between audience and the text by way of such grammatical items it is necessary to be familiar with frame context on the part of the audience.

b. The semantics(meaning) of nouns or nominal constructions, polysemy, metaphorical mapping can be understood only when language users are able to evoke frame context that forms social, cultural(encyclopedic) knowledge going beyond dictionary knowledge.

c. Frame context is some kind of knowledge structure that makes it possible to explain how people find certain story interesting and suspenseful.